

경기 솔솔~ 독서바람

독서교육 이야기

현장에서 소리 없이 독서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실천가들의 이야기를 담아 현장이 현장을 위한 자발적인
독서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모여
독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과정적 독서성장을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며 이러한 이야기가 바람타고 멀리멀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 -



※ 책 읽는 학교문화

- 학생이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대장정 02
- 독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름방학 집콕독서활동 06

자료 송부 및 문의

☎ 031-820-0728

✉ hjzzang222@korea.kr

※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통합·융합 프로젝트

- 비대면 모둠 토론허기 09
- 고전의 재탄생! 오(吾)! 서담(書談) 프로젝트 12

※ 독서(교육)역량

- 같은 그림책! 다른 느낌! 22
- 책을 중심으로 한 주제통합수업,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24

※ 특별기획

- 온작품 읽기, 외국의 사례 (영국편) 28

일상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사례를 기꺼이 공유해 주신 용인고등학교, 청운초등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송림고등학교, 천천고등학교, 비봉초등학교, 책과 교육 연구소 김은하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유 자료에 소개된 도서는 독서활동을 위한 예시 자료입니다. 선생님, 부모님, 학교(교사)마다 교육
활동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는
지금 독서 모임은 온라인 모임을 해주시고 오프라인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창의적인 공간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든다.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김경인-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①



학생이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대장정

활동기획 의도

2019년 아이들의 이용 만족도가 저조했던 우리 도서관,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배움이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 도서관으로 변화되기를 모두가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인식하게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과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프로젝트 대장정,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2주

준비 및 계획

1

- 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운영계획 실시
- 1~3학년 대상 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활동 참여학생 모집, 전체 교직원에게도 공지
- 학부모대표에게 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소개, 학부모 대표와 협의하여 독서토론 준비

2019년 8월 초

공간혁신 관련 전문가 특강

3

- 특강을 희망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들을수 있는 기회 제공
- ▶ 초청강사 건축학과 교수 및 도서관 공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2019년 8월 3주

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발표

5

- 학생들이 상상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학교 도서관의 모습 발표
- 학생, 교사, 학부모, 건축가가 함께 참관

2019년 7월 3주~8월3주

2 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활동 실시

- 인사이트 투어 실시
- 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활동 실시

2019년 8월3주

4 학생,교사,학부모와 함께 프로젝트동행

- 교육공동체가 함께 프로젝트 활동 진행
-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2019년 8월 이후

6 건축가 설계반영

- 학생들의 도서관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건축설계에 반영되도록 건축가와 지속적만남

수업-평가와 함께 진행된 프로젝트

성취기준

- ❖ [10국01-01]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 ❖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 ❖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 ❖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프로젝트 수업 운영 계획

단계	영역	차시	세부내용	비고
준비	공간혁신프로젝트 수업 준비하기	방학전 (7월2~3주)	- 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소개하기 - 프로젝트 모둠 구성하기 - 책 소개 및 구입 안내하기 - 도서관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공간 사진찍어오기	
1	학교 도서관 문제상황 분석하기	1 차시	- 학교도서관 둘러보며 사진 찍기 - 학교도서관 문제상황 분석하기(학습지 작성)	2학기
2	공간에 대한 책 읽기와 글쓰기	2~6 차시	- 배경지식 확장하기 - 「공간이 아이들 바꾼다」, 「학교공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읽기 및 글쓰기	
3	도서관 공간 상상하기	7~8 차시	- 도서관 문제 상황 분석에 따라 새로운 도서관 상상하기 : 토의하기(주제: 도서관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 공간 스케치(그리기)	
4	상상과 기술이 디자인되는 생각 발표 준비하기	9~10 차시	- 프레젠테이션 영상 시청하기 : 시청각설명 기술에 대한 영상자료를 함께 시청하기 : 발표 준비하기 : 발표 평가표를 미리 제공받아 평가 기준에 맞춰 발표 준비, 역할 나눔, 연습하기 등	컴퓨터실
5	평가하기	11~12 차시	- 학급 프레젠테이션 발표 - 평가하기	

이렇게 변신한 혜랑도서관 이모저모



독서 북카페



독서 마루



2019년 도서관 모듬(공간혁신프로젝트활동)



2020년 도서관 모듬(도서관활용수업)



복도 북카페를 활용한 원화전시회



매일매일 점심독서 15분



재개관한 헤랑 도서관! 축하 메세지

책을 읽는 장소와 보관하는 장소의 벽을 허물어서 보다 넓고 공간활용도 좋아졌다. 또, 공간의 분위기를 밝은 노란색 빛으로 바꾼 것도 good! 책들도 더 많아진 것 같다. 신간도서, 진로도서가 잘 분리되어서 쉽게 찾기 쉽다.

카페 같은 분위기, 복도로 창이나 있는 것 등 우리 용인고등학교 학교도서관 디자인 최고!!

새로운 도서관에게~
너 정말 서점같구나!
앞으로 많이 이용할게~
내일 봐~ ^^

도서관 리모델링 너무 좋아요~
책도 많아지고 디자인도 잘 되어서 더 공부할 맛이 나네요.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면 꼭 한 번 더 와서 자습이나 **책을 여유롭게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공간을 직접 설계하며... 상상을 공간으로 담아내면서...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 쉼이 있고 놀이가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작했던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프로젝트...

우리 아이들 중 건축가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보기도 하고 **학교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상한 우리의 도서관 맘껏 이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용인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일동 -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②

독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름방학 집콕독서활동

이런 뜻을 담아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여름방학 독서캠프 대체 프로그램으로 「2020년 여름방학 Dream Plus 독서꾸러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을 읽고 활동지를 할 수 있도록 학년별 수준에 맞는 독서 활동지를 제작하여 전 학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보았습니다.

집콕 독서활동을 이렇게~

활동 내용

활동 모습

※ 첫째, 신착 도서 표지 이미지 전시

- ▶ 신착 도서 표지 이미지를 촬영하고 출력
- ▶ 방학 전 도서관 복도에 전시



※ 둘째, 다행시 짓기 & 학년별 독서 주제 선정

- ▶ 신착 도서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한 다행시 짓기
- ▶ 학년별 독서 주제 선정 및 활동지 제작
 - * **저학년:** 동시 필사를 통한 글쓰기 연습과 동시의 감각 익히도록 유도
 - * **고학년:** 배경 지식을 넓히는 주제로 도서 선정



활동 내용

활동 모습

※ 셋째, 책 대출& 독서꾸러미 배부

- ▶ 학년별 권장도서 비치 및 독서꾸러미 배치



※ 넷째, 함께 나눔

- ▶ 개학 후 독서꾸러미 제출 및 전시
- ▶ 제출 학생 선물 증정으로 격려



공유 메세지

'코로나 19'라는 벽을 만나 모든 생활에 제약이 많아졌지만 그 벽을 벽이라 생각하지 않고 달리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들이 보입니다.

랜선을 이용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날로그 방식도 유용하다는 생각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꾸러미**를 준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독서캠프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독서 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서 **독서 공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도 좋지만 **이전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게 구성하면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독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비봉초등학교 오송희 선생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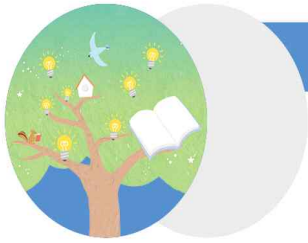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통합·융합프로젝트

언택트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먼터치(Human Touch)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

「트렌드 코리아 2021」
- 김난도 외 -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통합 융합 프로젝트 ①



비대면으로 '모둠 토론하기'



활동기획 의도

자기주도학습을 해 본 적 없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버거워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랑 하던 걸 혼자서 하려니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없어요.'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온라인 공간에서 그대로 재연하는 건 어렵겠지만, '모둠 토론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해 온몸이 근질거리는 학생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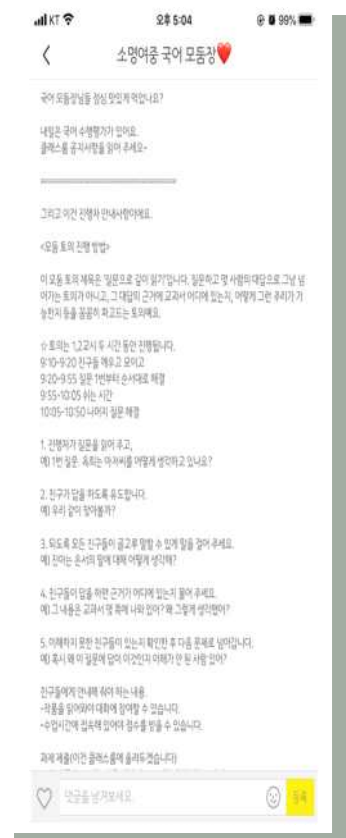
1. 준비

교사 혼자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각 학급에서 교사를 도와줄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학생들을 한 명씩 뽑아 '국어 든든이'로 명명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2학년은 다섯 학급이고 학급마다 모듬은 4개씩 구성해서 총 20개 모듬을 만들었습니다. 교사와 국어 든든이가 각 학급의 모듬 4개씩을 맡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렇게 하니 국어 든든이 학생이 수업 활동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모듬별로 모듬장을 한 명씩 두어 20명의 모듬장에게 도움을 받았고, 수업은 꽤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도움말 tip

- 대화방은 카카oo 공개 채팅방을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공개 채팅방 개수는 10개! 공개 채팅방은 연락처가 없어도 사람을 대화 공간에 모을 수 있습니다. 모듬장 학생에게 채팅방을 만들도록 하고 모듬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초대하면 아주 간단하게 모듬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 수업 전날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업 전날 알림이 필수입니다!

모둠장에게 '내일 모둠 활동 수업이 있으니 제시간에 채팅방으로 접속하라'는 내용을 모둠 대화방에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전날 미리 공지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접속률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제때 접속해 있지 않으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접속해 있던 학생들은 시큰둥하게 있다가 다음 수업을 들으러 가게 됩니다.

도움말 tip

- 평소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접속하지 않아 걱정할 일은 적어집니다. 다만, 영상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에서 여학생들은 비디오를 켜지 않습니다. 아침에 부하게 일어나 수업 듣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비디오가 꺼지면 오디오도 꺼지고 모둠의 활기도 금방 사라집니다. 영상이 아닌 메시지 채팅방을 활용해 모둠 활동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3. 수업

교사는 모둠장이 접속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공지합니다. 수업 시간 5분 전부터 모둠장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수업이 시작 되면 교사가 공지한 수업 흐름을 설명하면서 모둠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 모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작품을 읽고 교과서 질문에 답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질문 외에 작품과 관련해 묻고 싶은 내용은 따로 모아 수업 게시판에 올려주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모둠장들은 이 질문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움말 tip

- **모둠장에게 토론을 진행할 때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 * 이번 수업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하고,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그 답이 타당한지를 서로 파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중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친구들에게 어떤 질문으로 진행하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 * 예를 들면, 친구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그 답은 교과서 몇 쪽에서 찾을 수 있어?" 라든가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있어?",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 등 모둠장이 할 말을 적어 주면 진행을 처음 해 보는 학생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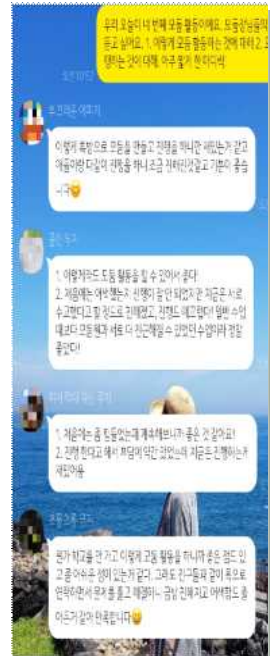
4. 수업 후

비대면 수업의 치명적인 약점은 피드백!

학생 개인의 활동을 살피기가 어렵고 그들의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개 채팅방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매체입니다. 학생들이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누구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그대로 저장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둠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대화를 편집해서 수업 게시판에 올려두면 학생 스스로 학습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교사가 올려둔 파일로 지필 평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tip

모둠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둠이 있습니다. 이런 모둠은 활동내용을 공개하기가 꺼려질 수 있어 처음 모둠 대화를 공개할 때는 “오늘 모둠 활동이 잘 된 모둠 있나요?” 하고 모둠장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모둠 활동이 끝나고 모둠장에게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서로 진행 요령을 공유하면, 다음 활동 진행이 더욱 더 매끄러워집니다.



모둠 활동 후 소감 한마디

공유 메시지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걸림돌을 슬쩍~ 밀어볼 용기를 내어봅시다.**

첫 비대면 모둠 활동 수업이 끝나고, 활동 소감을 설문으로 받았습니다. 17.2%가 '매우 좋았다'라고 답했고 65.5%가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익숙하게 쓰던 매체라 그런지 15명을 제외하고는 접속도 원활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모둠 활동에서도 메시지 대화방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학생은 75.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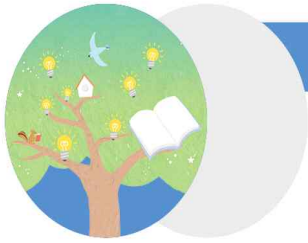
본래 실력이 좋은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해도 잘하지만, 중간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함께할 때 더 잘 배웁니다. 기초학습조차 어려운 학생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 하는 수업에서는 소외되기 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상황에서 포기해야 할 활동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걸림돌을 슬쩍 밀어볼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수업!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 책으로 통하고 싶은 소명여자중학교 교사 이정요 -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통합 융합 프로젝트 ②



고전의 재탄생!

'오(吾)! 서담(書談) 프로젝트'



활동기획 의도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으로 채울 수 없는 **심리적 허기**를 갖게 된 학생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따뜻한 온(On, 溫)텍트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읽을 수 있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새롭게 재해석되는 고전의 참맛을 음미해 볼 수 있다는 것! 힘든 시기 자신을 채워줄 책과의 만남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기억이기에 더 의미 있게 이 시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책 이야기 **"오(吾)! 서담[書談] 프로젝트"**는 2학년 고전 읽기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나누었던 고전 제대로 읽기 과정입니다. 1학기 고전과 그림책과의 만남을 통해 시각적 감수성을 키우고 2학기 고전과 미디어서적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읽고 세상을 바르게 읽는 미디어 리터러시 감각 키우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작정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의미 성찰하기, 책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의 언어로 재해석해 보고 표현하기, 고전을 통해 사회를 다시 바라보고 소통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짜 책 읽기**에 도전했습니다.



활동내용

< 1학기 >



1단계 고전 맛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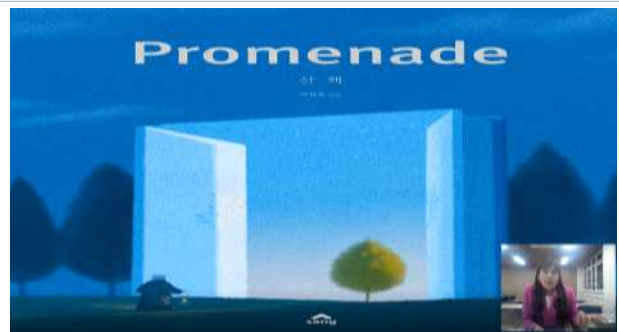
『나에게 책이란? 책의 의미 다지기』

1학기 <고전 읽기>를 시작하기 전 '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각 반 학생들에게 패들렛으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라 수업 중에 「산책(Promenade)」 그림책 장면을 파일로 제시하고 각자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고른 후 이유를 적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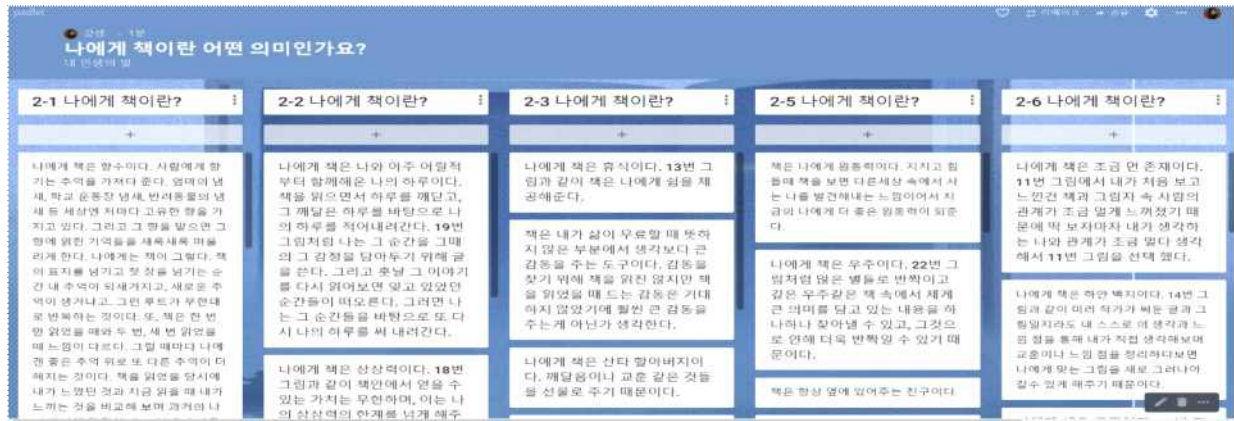
나에게 책이 갖는 의미
~ Promenade 산책 그림책 파일을 통해 자신에게 책은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그려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분임원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산책 그림책 leejunggho.com



✿ 꿀팁!

패들렛은 서로의 글을 살펴보고 상호 소통이 가능하도록 패들렛 댓글 작성과 '좋아요' 평가가 가능하게 설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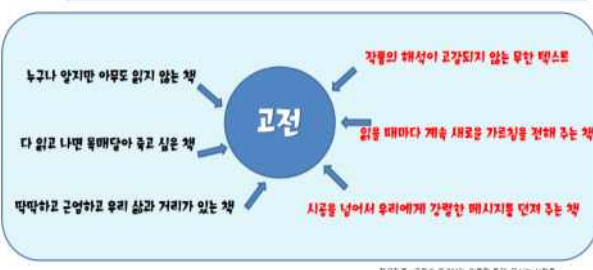
2단계 고전의 의미 깨닫기

『쉬운 고전 - 그림책 도전하기』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담기 위해 우선 학생 모두 네이버 카페에 가입시키고 그림책 읽는 방법부터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들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유치하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에 담긴 그림과 텍스트의 의미 해석은 읽는 사람의 독해 수준에 따라 그 깊이가 무궁하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담아낼 수 있는 문학적 상징성, 시각적 감수성으로 그림책에 다가갈 것을 강조해 줍니다. 짧은 이야기에 담긴 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줍니다. 고전의 범주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작품의 해석이 고갈되지 않는 무한 텍스트,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 주는 책, 시공을 넘어서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 바로 고전이며 어린 시절 감명 깊게 읽은 그림책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감흥을 준다면 이것도 훌륭한 고전이라고 고전의 가치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면 난독증이 있다는 등, 책 읽는 것이 딱 질색이라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책 읽기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도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림책 읽기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1학기에 읽을 그림책 목록을 제시해 줍니다.



고전의 가치



서평쓰기용 그림책 예시

순서	책이름	저자	출판사	주제
1	내지아마기	윤리	아이마길	성명
2	물벼룩	레미 반종도	북스도리 아이	두려움
3	빨강 고래를 타 이야기	마이를 들	물물	꿈, 진로, 다양성
4	내지온	김정미	북극곰	진로, 다양성, 성장
5	김기 싫은 물고기	박정섭	사계절	자신과 친밀, 자유
6	무릎까지	이정현	한울림 어린이	가족애, 죽음
7	가장말 같은 이야기	김영수	서글송나미	말하기, 자유, 성장
8	픽카리아	연승익	창비	살의 의미, 자유, 존재의 소중함
9	가래 고장이의 영웅 불독스	도미 용거리	비룡소	자아와 사회, 공존
10	보루노를 위한 책	나눔하우스 하이델베르	물방	독서, 꿈, 자기 이해
11	여기보다 어딘가	거스 고든	그림책문학소	우정, 기억, 용기
12	슈퍼거북	강이영	도토리출	내 속도로 살 권리, 나와의 경쟁 삶의 속도로 성장, 행복
13	모험자의 그림자 극장	이해영민	비룡소	꿈, 죽음, 외로움, 꿈
14	마치야 거인	요정수아 플라스	다자민하우스	자연보호, 환경의 파괴성
15	영마의 초상화	윤지연	아이마길	가족애, 자아정체성



3단계 고전 비판적 읽기

『아는만큼 보인다! 그림책 읽고 그림책 서평 쓰기』

상중하 수준으로 나누어 주제별 15권의 그림책을 소개해 줍니다. 제시한 15권의 책 중 1권을 선택해서 읽어도 되고 어려웠을 때 읽었던 감명 깊은 그림책을 다시 읽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그림책을 줄 수 없어서 그림책 구입은 학생들의 책 선택을 참고해서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동네 서점에 미리 구입한 뒤 학생들이 각자 서점에서 찾아가게 했습니다. 각자 선택한 그림책을 읽고 단계별로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서평 쓰기를 완성합니다. 서평 쓰기를 하면서 그림책이 각자 다른 작품 해석의 깊이를 담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텍스트인 그림책을 활용하여 작성한 서평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해 주면서 고쳐 쓰는 과정에서 보다 완성된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서평 쓰기 글감 만들기 활동지

■ 그림책 서평 쓰기 -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1

● 글감 마련을 위한 질문

1. 이 그림책을 왜 선택했나요? (선택 이유)

2.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3.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4.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5.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6.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7.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8.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9.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10.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11.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12.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13.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14.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15.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 묘사)

그림책 서평 쓰기 개요 작성하기 활동지

■ 그림책 서평 쓰기 -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2

1.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2.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3.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4.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5.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6.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7.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8.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9.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10.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11.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12.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13.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14.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15. 글감 마련하기 활동지

그림책 읽기 과정 작품을 분석하고 타당한 해석을 내리는 비판적 읽기



※ 자료: 빠가(2017), 빨강 코리온의 이야기, 현문출판사

맨 처음 그림책 표지를 보는 순간 빨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표지 그림이 파랑으로 색칠해져 있는 지 생각하게 되었다. 본연의 성질과 다른 모습, 마치 내가 아닌 나를 강요 받으며 입시를 위해 무조건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세평을 쓰면서 나처럼 내 꿈은 무엇인지 나만의 색깔을 나는 것 못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일대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준 시간이었다.

학생 그림책 서평 쓰기 활동 후기

그림책 서평쓰기 과정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 평가하는 비판적 쓰기



※ 자료: 리더(2018), 양육의 날 종리 5세, 현문출판사

「서평 후기」
책의 맨 마지막 장 표지에 평범한 양 우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권력자, 늑대가 파란 왕관을 쓰고 무서운 표정으로 두 발로 걷는 장면을 보면 이 책의 결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중략)
리더가 가진 힘과 권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이다.

학생 그림책 서평 내용

상호 평가적 협의 과정 (둘러 읽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작품 내 가치를 분석하는 비판적 읽기

누구나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 자료: 돼지꿈(2017), 돼지꿈, 현문출판사

돼지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돼지가 되는 게 꿈이라는 설정, 주연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세계의 위인들이 경악하는 장면 속에 세상에 원한을 품고 있는 실정인 우리의 슬픈 교육 현실을 드러내 주고 있어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학생 그림책 서평 내용

상호 평가적 협의 과정 (고쳐 쓰기) 감상을 내면화하고 인식을 확장하는 비판적 쓰기



※ 자료: 인간의 초상화(2014), 양육의 날 종리 5세, 현문출판사

작품의 주제를 여성의 삶에 국한하여 제시하였는데 모든 인간들의 삶으로 확대해서 살펴 보면 좋겠다. 모든 인간은 현실과 이상의 두 차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인식을 넓혀준 친구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서평을 고쳐 쓰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을 수정하고 더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림책 서평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었다.

학생 피드백 내용과 고쳐 쓰기 활동 후기

『 고전은 현재에 어떻게 변용될까? 』

그림책 서평 쓰기를 통해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난 후 2가지의 심화 수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그림책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작업**, 두 번째는 **팟캐스트 제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느꼈던 그림책의 감흥을 공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림책 만들기가 어려운 학생은 팟캐스트 제작으로, 그림책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 사람은 그림책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미리 그림을 잘 그려야지만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도형과 선으로만 표현한 그림책, 색깔로만 표현한 그림책 글씨체나 글자의 나열 등으로 완성된 그림책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그림책은 그림이 예쁜 것이 아니라 그림이 드러내는 상징성,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5월 온라인 수업시 동영상 시청 이후 교사 피드백의 과정으로 수업하면서 2개의 수행평가를 이원화해서 제작 단계별 설명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살펴보게 하고 앞뒤로 시차를 두어 줌으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1) 그림책으로 창작하기



고전 그림책 창작 수업 설계



참고자료 : 원문자 최강, 송아책(2018), *올겨울 그림책 쓰기*, 한지사



학생 그림책 창작 작품

2) 팟캐스트로 창작하기

실행 단계

그림책 선정하기 → 북 토크 하기 → 제작 시나리오 작성하기 → 녹음 및 편집하기

1단계

그림책 선정하기

북 토크 하기

제작 시나리오 작성하기

녹음 및 편집하기

● 대본 낭독하기
● 스마트폰 활용 녹음하기
● 녹음 내용 보완 및 배경 음원 구하기
●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용 편집하기

2단계 실행 단계

그림책 선정하기

북 토크 하기

제작 시나리오 작성하기

녹음 및 편집하기

● 대본 낭독하기
● 스마트폰 활용 녹음하기
● 녹음 내용 보완 및 배경 음원 구하기
●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용 편집하기

팟캐스트 녹음 활동 모습

팟캐스트 창작은 **모둠으로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수행평가를 수행하기 힘든 학생들도 모두 잘 참여하는 방송이 구성될 수 있도록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없도록, 잘하는 학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모둠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 동안은 카톡이나 ZOOM 회의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모듬끼리 토의할 수 있도록 ZOOM 소회의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방송에 대한 두려움은 저만 있었나 봅니다. 학생들은 금세 핸드폰을 사용해서 배경음악도 잔잔하게 깔고 진짜 라디오 방송 같은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팟빵 사이트에 자신들의 팟캐스트 방송을 올리는 법**은 따라 하기 편한 매뉴얼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무언가 만들어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나 봅니다.

1학기 활동을 마치고 소감문을 쓰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친구들과 우리 모듬의 팟캐스트를 함께 들으며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림책의 이미지와 텍스트, 우리들의 음성과 음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희열이 느껴졌다.” **“다양한 청취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그림책 에피소드를 개발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해서 단순히 책읽기로만 끝내지 말고 읽기가 내 삶에 어떻게 변용되어 창작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 5단계 고전과 미디어 만나기

『 어려운 고전에 도전하기 』

1) 어려운 고전 천천히 읽기

1학기는 책에 대한, 고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신나게 책 읽을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2학기는 좀 더 심화된 고전 책 읽기를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고전에 도전해 보기, 어려운 만큼 혼자서 읽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에 페이지를 나누어서 분량을 정해 놓고 조금씩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네이버 밴드에 각 반별로 학생들을 가입시키고 매일 분량을 정해서 올려 놓고 댓글로 인상 깊은 구절을 쓰거나 책에 밑줄 그은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짧은 감상을 적는 것까지도 허용하구요. 2학기에 읽을 고전 읽기 작품은 코로나19의 시대에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페스트(알베르 까뮈)」와 「동물농장(조지오웰)」 「1984(조지오웰)」로 정했습니다. 매일 읽고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여유있다고 생각하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분량의 책을 읽고 인상깊은 구절을 댓글로 올리는 것으로 정하고 조금씩 1달에 1권 읽기로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9월의 책 「페스트(알베르 까뮈)」, 10월의 책은 「동물농장(조지오웰)」, 11월의 책은 「1984(조지오웰)」 순서로요.



#포미읽기 #오늘한구절

댓글 20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주영
어두운 항구로부터 공식적인 축하 행사의 첫 불꽃이 올라갔다. 도시는 길고 귀를 먹먹하게 하는 함성으로 이 불꽃을 반겼다. 코타르, 타루, 리외가 사할했고 읽은 남자들과 여자들, 죽었거나 범죄자였거나 그들 모두가 일러 가고 있었다. 노인의 말이 울었다, 사람들은 항상 같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힘이자 무고함이었요, 바로 여기에서 리외는 모든 고통을 넘어 그 자신이 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성의 문제입니다. 비록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실적인 것입니다.제가 이 도시를 떠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선생님과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존경스럽다. 희망을 떠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알베르가 리외의 성실성에 대해 생각한 후, 결국 자신도 보건 조직에 동참하게 되는 부분은 독자에게 뭉치 모를 감동을 주고, 알베르의 결연함을 느끼게 해 준다.
9월 7일 오후 10:44



김윤정
도시의 눈을 크게 뜬 채 잠자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오로지 결투기에는 다 아문 것으로 보이던 상처가 한밤중에 뚝뚝 다시 쓰러져 오는 그 드문 순간들뿐이었다.
- 민음사 241페이지
9월 7일 오후 10:51



서현선
반면에 다른 지역주민들은 곤란한 순간에 부덕처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보다 덜 자유롭다는 것을 상상하고는 어떤 위단을 얻는 것이었다. 항상 나보다 더 부자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무렵이 풀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요약하는 표현이었다.
민음사, 223쪽
9월 7일 오후 11:20



박현주
페스트라고 하는 저 꼭대기 지점에서 내려다보면 현무수창에서부터 앞단 최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밴드에 댓글을 달면서 읽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는 구절을 다시 찾아보게 되고 늦게 읽는 학생들도 앞서 읽어가는 친구를 따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의 '좋아요'나 칭찬 댓글을 보면서 기쁜 마음에 더 열심히 읽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목, 금요일 마지막 차시 수업에는 이제까지 읽은 책의 내용을 토대로 반 학생들과 온라인 독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밴드에 인상 깊은 구절 댓글도 잘 달지 못하고 책읽기가 마냥 싫었던 학생이 친구들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뒤늦게 책이 읽고 싶어졌다고 이야기해서 역시 책은 혼자서 아니라 함께 읽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 체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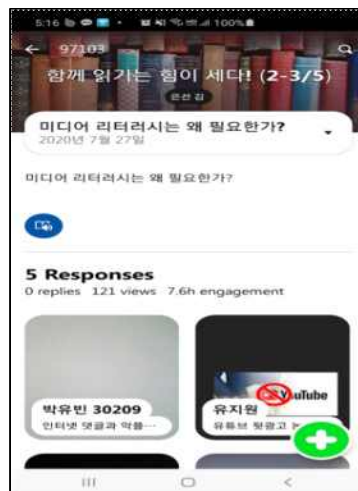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3권의 책을 추천했던 것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관련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많은 것들이 규제되는 답답함, 그리고 **삭막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3권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방송기자협회 / 무료 E북 제공됨)」의 내용을 틈틈이 같이 공부하도록 **사전에 가짜뉴스와 팩트체크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하고 일주일에 한번 가짜뉴스 판별**과 관련하여 관련된 기사문을 제시하고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비대면 상황에서 발표를 시키기 어려워서 요즘 사회에 자주 거론되는 기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플립그리드(Flipgrid)를 이용**해서 발표 동영상으로 올리고 친구들의 발표 동영상에 동영상으로 다시 댓글을 달거나 칭찬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해서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발표 과정을 통해 팩트 체크를 경험하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선정해서 이후 비평문 쓰기 수행을 실시했습니다.



팩트체크 6단계



고전은 오래전 작품들이지만 작품 속 사회 문제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의 행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점은 결국 변함없이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전을 읽는 것은 세상을 바로 읽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읽기 과정을 통해 선량하지만 단호하게, 비판적 사고로 왜곡된 진실들을 바로 잡는 학생들로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의 책과의 만남!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단절, 교육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우려 속에서도 현장 교사들의 위기 극복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새로운 소통 방식과 온라인 안에서 담아내는 인간 교육은 미래교육의 도래를 더 빠르게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교육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이끄는 것이** 이 시대 **교사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리더십이자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섬세함**과 **민첩성**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독서 나눔을 통해, 삶을 통찰하는 진지한 고전 읽기를 통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의 가치와 인간애**를 지켜내야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질 높은 배움에 도전하기 위해!
오늘도 아이들과 책을 만납니다.

- 독서를 사랑하는 송림고등학교 교사 김은선 -





독서[교육]역량

마음이 사람을 향하면 공감, 사물을 향하면
호기심, 사건을 향하면 문제의식, 미래를 향
하면 통찰, 나를 향하면 성찰이 된다.

「강원국의 글쓰기」

— 강원국 —





같은 그림책! 다른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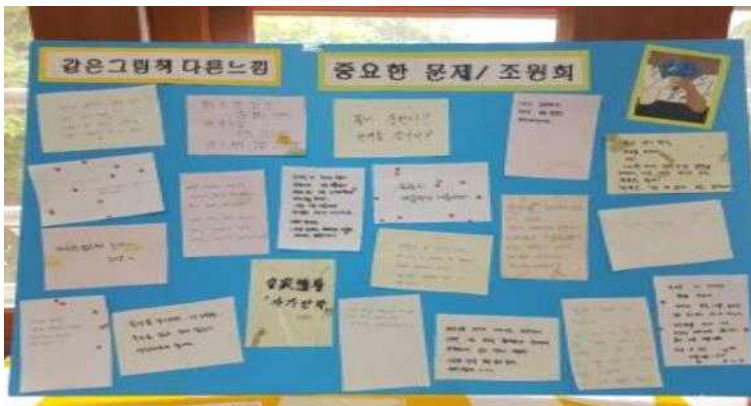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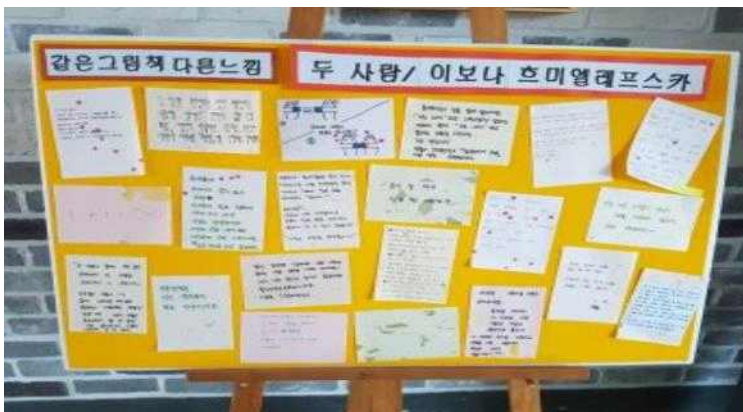
활동 기획 의도

교직원들의 인문 교양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모여 생각 나눔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림책 한 권을 선정하고 그림책을 돌려 읽고 각자 책을 읽고 난 느낌을 동봉한 메모지에 짧게 쓰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작성한 메모지를 전시하고 함께 둘러보며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활동 사진



선생님들의 말, 말, 말~♣

- ♣ 같이 또 따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 ♣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함께여서 더 어렵고 함께여서 더 쉽습니다.
- ♣ $1+1=\infty$
- ♣ 뭐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다.
- ♣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작은 행복을 알게 해주세요.
- ♣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그냥

선생님들의 말, 말, 말~♣

- ♣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참 힘드네요. 행복한 삶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요
- ♣ 오예~ 안 혼났다. 혼날까봐 마음 졸이던 아이의 내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실수는 눈감아주는 마음 넓은 교사가 되어야겠다.
- ♣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말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 ♣ 한 사람의 관심과 배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 ♣ 모두 따뜻한 마음을 지닌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활동 사진



공유 메시지

활동 후 우리들은...

- * **생각의 틀이 더 넓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 * **올 한해 코로나19로 선생님들과의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웠는데 '같은 그림책 다른 느낌'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 * **사서선생님~ 좋은 그림책 선정해주시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그림 다른 느낌' 활동이 저에게 정말 **힐링**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요 ^^

코로나로 인해 혹은 너무 서로들 바쁜 생활로 인해 공동체로서의 생각 나눔이 어렵고 힘든 요즘.....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위한 작은 선물 찾아 주는 일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책을 읽어보고 느낀 서로 다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 독서를 사랑하는 청운초등학교 박승연 선생님 -

책을 중심으로한주제통합수업,무엇을기대할수있을까?

활동 기획 의도

수업과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사 공동체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 책 한 권을 중심에 둔 수업과 수행평가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를 주제로 「회색인간」을 읽은 뒤 국어, 영어, 사회, 한문교과의 주제통합 수업을 하였습니다.

활동 내용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

선생님들과 국어-사회-영어-한문 교과
주제통합수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사회 부조리/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단행본 한 권을 읽은 뒤 네 개의 교과로
함께 수업과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단편소설 한 편과
3~4장의 영어 원서가 추가 투입됨)



국어-사회-영어-한문 교과가
함께 한 주제통합수업



수업,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교사의 만족이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한 개의 교과에서 독서 수행평가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읽기(+일지쓰기) -자료수집-글쓰기(초안쓰기와 고쳐쓰기 포함)의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에 쫓겨 활동을 몰아치다보면 결과물은 받긴 하지만 입맛이 개운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제통합수업을 계획하고 책 한 권을 읽은 뒤 교과의 특성에 맞춰 활동을 나눠 맡으면 각 단계를 충실히 밟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 ① 시수가 많은 교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일지를 쓴 뒤 채점합니다.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을 읽었습니다.)
- ② 국어과에서는 4차시 동안 충분히 시간을 들여 자료수집과 분석법을 설명하고 실습합니다.
학생이 작성한 자료수집 계획서와 제출한 자료의 수준을 바탕으로 채점하고 수행평가 점수를 주었습니다.
- ③ 사회과에서는 '사회불평등과 부조리'를 주제로 한 논설문을 쓰는데, 이때 국어 시간에 수집해 온 자료들이 활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국어교사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자료들을 글감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라 평소보다 완성도가 높은 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논설문에 사례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타당한 대안을 마련하였는지의 여부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 ④ 영어과에서는 원서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수업의 큰 주제가 '사회 불평등'이었으므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담은 특정 장들을 읽고 영어 에세이를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 ⑤ 원서 이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어과에서는 영화를 본 뒤 매체 분석 수업을 하며 영어 수업을 도왔습니다.
- ⑥ 영화 수업에서 작품의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미학적 특성을 논할 시간이 없는데 주제통합수업에서는 영어과에서 주제를 다루어주니 국어과에서는 형식적인 면에 무게를 두고 수업할 수 있습니다.
- ⑦ 한문과에서는 두보와 정약용의 한시를 학습한 뒤 불평등을 주제로 5언 절구를 쓰고 전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학교의 동료들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대화,
함께할 수 있는 기대감과 상상력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 이 사람들과” 라는 기대를 일으키는 것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력은 없습니다!



학생들과 책을 읽고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책을 읽고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
이라면, 꼭 **책 한권을 중심으로 한 주제통합수업**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바랐던 것은 이런 수업이었어!” 라는 깨달음과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감탄의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수업에선 이 즐거운 경험을 해보시는 선생님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 독서를 사랑하는 천천고등학교 교사 김영희 -





특별기획

본 자료는 <어린이와 문학>에서
안내되었던 내용 중 김은하 대표의
원고만을 다시 발췌하였습니다.



온작품 읽기, 외국의 사례

- 영국편 -



책과 교육 연구소 대표 김 은 하

20년 전 영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가장 놀란 점은 교과서 없는 수업과 객관식 없는 시험이었다. 영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유럽과 미주의 수업에서 교과서 없이 수업한다는 거다. 국정교과서는 당연히 없고, 주별 혹은 학교별로 선정된 교과서가 있더라도 이는 하나의 수업 자료란다. 마치 실험도구, PPT, 활동지, 영상자료, 축구공, 강낭콩 화분처럼...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되는 수업 자료는 '책'과 교사가 선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읽기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읽는 독서 교육이 한정된 교과로서의 '독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숙제, 방과 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독서 선진국에서 책읽기는 모든 교과목의 기본 활동이다. 국어 시간에 초등 저학년은 그림책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고전 작가들부터 현대 작가에 이르기까지 단행본으로 수업한다.

영국은 초등학생 3학년만 되어도 3백 쪽에 달하는 호흡이 긴 장편을 교재로 쓴다. 사회 시간에는 책읽기에 토론과 체험이, 과학 시간에는 읽기에 실험과 관찰이 더해진다. 과목만 달리할 뿐, 초등 1학년부터 대학원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책 읽기, 토론하기, 글쓰기, 책이나 보고서 만들기가 핵심적인 교육 활동이다. **책 읽기는 진도의 바깥이 아닌 학교 수업의 중심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전 과목의 교사들은 독서 교육에 관여하며, 수업을 위해서는 자기 과목의 **어린이 청소년 책에 통달해야 한다.** 동화를 공부하면, 동화책을 선정해서 읽고 토론하고 문학적 특성과 동화 쓰기를 배운다. 평가는 동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담은 독후감 혹은 동화 창작하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공부를 잘하려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 나누고, 많이 쓰는 수밖에 없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Key Stage 4** (10~11학년, 만 14~16세)의 영어과 지침 일부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다양한 양질의 고전부터 현대까지의 문학과 비문학의 전문을 읽고 감상**하도록 한다.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 편 이상, 19세기, 20세기, 21세기의 작품들, 1789년 이후의 낭만시를 비롯한 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설문, 광고, 에세이, 기사 등의 비문학의 글도 다루어야 한다. 교육과정지침에는 읽기와 쓰기 듣기/말하기, 문법과 어휘 등에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할지를 기술해놓았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말로 혹은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희곡의 경우, 희곡이라는 장르는 어떤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대화가 어떻게 인물의 성격과 관계와 주제를 드러내는지, 다양한 연극적 장치들(무대, 소품, 지문, 의상, 조명, 음악, 음향 효과)은 어떤 효과를 갖는지, 배우의 움직임과 연기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등을 배운다. 이를 수업 속에서 어떤 희곡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입센(Ibsen)의 희곡, 『인형의 집』을 골라, 희곡의 역사적인 변화를 가르칠 목적으로, 20세기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와 비교하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혹은 희곡에서 대사(dialogue)가 인물의 성격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가르칠 목적으로, 남편 헬머와 아내 노라의 대사를 분석하게 할 수도 있다. 서로를 부르는 명칭, 대사의 톤, 상호작용의 방식, 단어 등을 분석하여 둘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대사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아내게 할 수도 있다. 연극적 장치들의 효과를 가르칠 목적으로 『인형의 집』의 무대나 소품, 의상을 인물의 성격이나 주제에 맞도록 구상하도록 수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분석한 희곡을 바탕으로 주요 장면을 연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희곡을 쓰게 할 수도 있다. 학교의 시험은 절대평가로,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태도, 보고서, 연기, 희곡 작품 등으로 평가한다.

비문학인 '연설문'을 가르친다면, 교사가 수업에 쓸 연설문을 정한다. 2차 세계대전 중의 처칠의 연설문부터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전당대회 연설문까지 다양하다. 연설문을 함께 읽으며, 연설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양한 수사적인 특성 (병렬, 반복, 대조, 질문, 문장 길이), 타깃청중, 어휘, 비유, 라임이나 리듬 등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한 가지 정치적 견해의 연설문 보다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거나 역사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연설문을 읽고 평가하게 한다.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설문을 쓰고 발표하게 한다. 실제 대학입학 시험인 A level 시험문제를 보면, 마르틴 루터킹의 1964년 노벨평화상 수락 연설문의 일부를 읽고, (1)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언어와 스타일을 구사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라. (2) 연설의 스타일과 특성을 분석하여 연설의 뒷부분을 120~150자로 더 덧붙이라는 문제가 나온다.

희곡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희곡을 다 읽는 건 불가능하다. 연설문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연설문을 다 읽을 수는 없다. 수업에서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한 장르의 한 작품을 함께 꼼꼼히 읽어간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질문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집중한다. 쓰기도 마찬가지다. 독후감을 잘 쓰기 위해서 모든 책에 대한 독후감을 쓸 필요는 없다. 한 편의 독후감이라도 제대로 쓰는 법을 넉넉한 시간과 피드백 속에서 배우는 것이 다음 독후감을 쓰는데 더 효과적이다. 작품 읽기, 질문 만들기, 느낀 점 말하고 듣기, 글의 개요 구상하기, 초안 쓰기, 친구들의 초안 읽고 비평하기, 고쳐 쓰기, 재교 발표하기, 교사의 비평과 교정 등을 여러 차시에 걸쳐 배운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독서 선진국의 경우,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부터 우리와 다르다. 20~30년 교사 생활을 한 수업 전문가들이 예비교사를 가르친다. 수업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해야 하니, 예비교사들은 아이들 책을 읽는 것이 필수다. 교대나 사대의 도서관에는 어린이 청소년 책들이 가득하고 이 책을 활용한 수업 안이 또 한 가득이다. 교사가 되고 나서도 평생 아이들 책을 수집하고 신간을 챙긴다. 특히 초등 교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책으로 교실 안에 학급문고를 만드는 게 필수다. 자신의 수업과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책들로 학급문고를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틈틈이 읽힌다.

수업에서 주로 다루지는 어린이 청소년 도서는 다음과 같다.

- **그림책**이다. 초등 저학년 수업에서 주로 다루지만, 고학년의 경우에도 다양하게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업에서 활용할만한 좋은 그림책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그림책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읽어주기 편하도록, 스테디셀러의 경우 크기가 큰 빅 북(big book)을 이용한다.
- 학교에 입학해서 글자 읽기를 배우기 때문에, **글자 읽기 연습용 도서를 시리즈**로 출간한다. 이를 Basal Reader 혹은 Readers라고도 한다. 철자, 단어 길이, 단어 빈도수, 문장 길이, 문장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8쪽짜리 책부터 조금씩 더 어려운 책까지 단계별로 출간한다. 단어와 문장을 제한하여 책을 만들고 백 권이 넘는 단계별 시리즈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라 자본력이 있는 출판사가 주로 참여한다. 양질의 글자 읽기용 책은 단순히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품으로서의 재미와 완성도도 높다. 대표적으로 Random House의 Dr. Seuss의 책들, Oxford University Press의 Oxford Reading Tree 시리즈 등이 있다. 현재 초등 1학년 수업에서 시급히 필요한 책들이다.

- **난독증(dyslexia)**을 가진 아이들은 글자의 해독에 어려움을 겪기에, 글자를 배우는 1~2학년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면 이후의 읽기 지체를 막을 수가 있다. 약 2만3천여 명의 초등학생, 즉 100명에 1명이 난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난독증을 위한 서체'로 인쇄된 책들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 읽기 부진 아동을 위한 책들도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책을 하이-로(hi-lo 혹은 high-low)북이라고 하는데, 제 연령대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high interest), 낮은 읽기 수준으로 읽을 수 있는(low level) 책이다. 예를 들어, 십대의 사랑 이야기를 초등학생 3학년 정도가 읽을 수 있는 쉬운 단어들로 쓴 책이라면 십대 읽기부진아가 읽기 쉽다. 이런 책들은 성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로도 두루 쓰인다.
- **좀 더 긴 읽기 연습용 책**으로 본격적인 줄 글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Chapter Book**이다. 이 책은 한 장(chapter)을 짧게 구성하여,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이 읽으며 장 사이에 쉴 수 있게 한다. 삽화도 많아 읽기 쉽다. 우리나라의 사계절, 어린이작가정신, 좋은책어린이, 계림북스쿨, 햇살과나무꾼 등의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저학년 문고가 이와 비슷하다. 외국에서는 읽기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계별로 기획하고, 독해가 쉽도록 대부분 시리즈로 만든다. 시리즈는 인물과 배경이 고정되고, 사건이 일정한 패턴을 갖기에 읽을 때 예측이 쉽다. 또한 시리즈를 다 읽는 긴 기간 동안 시리즈의 인물들과 친해지면서, 인물에 동화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읽고 싶어 한다. 『탐정 네이트(Nate The Great)』, 『주니 비 존스(Junie B. Jones)』, 『말썽쟁이 헨리(Horrible Henry)』, 『팬티 선장(Captain Underpants)』, 『괴짜 과학자 프레니(Franny)』, 『웜피(Wimpy) 키드』 등 인기 있는 Chapter Book 시리즈가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시리즈물로 『명탐정 두덕씨』, 『은지와 호찬이』, 『스무고개 탐정』, 『코드 네임 V』 등이 있다. 아이들의 애착을 끌어낼, 매력적인 인물이 주인공인 시리즈 챕터북도 우리 작가의 작품으로 더 필요하다.
- **다양한 어린이 문학, 어린이 정보책, 청소년 문학, 청소년 정보책 등이 수업에서 교재로 쓰이거나 학급문고, 학교도서관 도서로 수서된다.** 책으로 하는 수업에서 교사들은 국어 시간에 저자탐구(author study) 수업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한 저자를 설정해서 여러 작품을 읽고, 저자의 주된 관심사, 주제의식, 글쓰기 방식 등을 찾아가는 수업이다. 교사가 저자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저자에 대한 정보를 찾도록 과제를 내주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자주 활용되는 것이 저자의 홈페이지이다.

- **어린이 청소년 작가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자신의 타깃 독자에 맞는 디자인과 문체로 쓰여 있다. 이를 통해 저자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실어놓기도 하고, 수업 도움 자료를 올려놓기도 하며, 개인적인 활동과 사진, 신간도 알린다. 외국의 아이들은 작가와 직접 닿을 수 있다. 유튜버와 웹툰 작가들이 독자와의 소통에 적극적인 것처럼 말이다.
-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나 고전은 어린이 청소년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재출간**한다. 독자의 감각에게 맞추어 표지나 편집 디자인을 바꾸고, 일러스트, 어휘 해설, 인물관계도 등을 추가한다. 고전은 읽기 쉬운 언어로 쓰인 축약판(abridged edition)으로 출간되는 경우도 많다. 축약판은 출판사나 책임편집자, 축약판을 쓴 작가의 명망에 따라 선택되거나 서평지나 동료 교사들의 평가로 선택된다.

❖ 한국 독서교육을 위한 제언

현재 우리의 어린이 작가들에게는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동시에 켜졌다. **빨간 불**은 수직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어린이 인구와 출생률,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자매체 읽기 증가와 조기화**다.

그나마 숫자가 적어진 아이들도 예전보다 종이책을 읽지 않는다. 아이들이 공부에 바빠서 책을 못 읽는다고 하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은 아무리 바빠도 습관적으로 읽는다.

매일 혹은 일주일에 1번 이상 종이책을 읽는 고등학생은 32%이나 웹툰이나 웹소설은 70%에 달한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종이책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문제인지, 종이책이 독자의 관심을 담아내지 못해서인지 종이책 읽기=학습이라는 반복된 경험과 태도가 문제인지, 종이책 읽기에 대한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부재가 문제인지, 수동적인 독서교육이 문제인지 말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 아이들을 책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기 어렵다.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책 구경을 하고, **재미있고 수준에 맞는 책들을 학급문고로 다양하게 구비**해야 한다. 핸드폰을 켜면 볼 수 있는 웹툰처럼,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자기가 읽던 책이, 읽고 싶은 책이 놓여야 한다.**

교사들은 어린이 청소년 도서를 읽고, 수업 시간에 이를 읽어주거나 읽고 싶어지도록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고르고,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나 사서는 아이가 읽기 싫어하는 분야나 주제의 책들을 쉽고, 얇고, 짧고, 그림과 사진과 같은 비주얼한 힌트가 많으며, 좋아하는 요소를 갖춘 책으로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사의 독서동아리나 책을 활용한 수업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TV나 핸드폰 등의 방해 없이, 읽는 시간 자체가 학교의 일상이나 수업에서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추천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가와 아이들 독자가 온라인으로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저자와의 만남으로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읽은 책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나 퀴즈를 푸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말로, 몸으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창작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금 켜진 **파란 불**은 바로 이것이다. '**온 책 읽기**'로 적어도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전부터 어린이 책을 읽고 수업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해왔던 교사들이 날개를 달았다. 후배 교사들을 위해 책을 쓰고 연수를 진행하느라 바쁘다. 온 책 읽기를 해오지 않았던 교사들도 수업을 위해 억지로라도 어린이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우리 작가들도 온·오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림책 작가인 장 브레(Jan Brett)는 5000여장의 그림 자료를 수업용으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영국에선 월드컵 시즌에 어린이 책 작가들이 매 경기 후에 이를 소재로 한 시를 써서 사이트에 올리고, 아이들이 쓴 축구 시에 코멘트를 달아주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책을 단 2권 출간한 신진 작가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수업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활동안을 무료로 다운받도록 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진 파란 불에 작가들이 더 파란 빛을 실어주면 좋겠다.

참고 문헌)

월간 < 어린이와 문학 >

이병곤, 김은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6.